

## 황룡사 중건가람배치 연구

### A Study on the Layout of the 2nd construction in Hwangnyongsa Buddhist Temple Site

김 숙 경\*

Kim, Sookyung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황룡사복원정비사업단 선임연구원)

#### Abstract

This paper aimed to identify the variation of layout in Hwangnyongsa buddhist temple site based on studying published the excavation research paper and texts related to layout. According to earlier studies, in 1st construction period(553~569) of Hwangnyongsa, there were trisection spaces with one main hall and two corridors in inner part and then in 2nd period(584~645), unified one. But actually trisection spaces had been maintained until the middle part of 8th century. And in each space there was the main hall with large yard. That is the 2nd period layout of Hwangnyongsa. For the attainment this result, each building remains are judged under duplicated situation which one was the previous and next by consideration of the construction condition and special features of foundation. Although the meaning of trisection system of Hwangnyongsa is similar with the layout of ancient palace, it could be said to derive from accumulation excavation research in Silla's archeological site and such studies.

주제어 : 황룡사지, 유구, 중건시기, 배치, 금당

Keywords: Hwangnyongsa buddhist temple site, features, 2nd construction period, layout, main hall

#### 1. 서 론

황룡사는 진흥왕이 553년에 창건하여 1238년 몽골군의 병화로 소실되기까지 존속하였던 신라 불교사원이었다. 창건 이후 진흥왕대에 인도 아쇼카왕과 연관되는 설화를 가진 장육존상을 주성하였고 10년 뒤 진평왕대에는 금당을 새롭게 조성하였으며 선덕왕대에 이르러 자장의 건의로 구층목탑이 건립되었다. 황룡사가 중영되어 온 과정은 삼국사기·삼국유사 등 문헌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1976년부터 시작된 8년간의 발굴조사로 사원의 실체가 드러나 크게 주목을 받았다.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1984)는 황룡사 회랑 내곽에 있는 각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기록이다. 여기에서 발굴조사결과를 토대로 황룡사의 가람배치가 4단계의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sup>1)</sup>하였고 보

고서 발간이후 관련분야의 다양한 연구성과도 이어졌다. 그 중 가람배치에 관해서는 주로 황룡사 가람배치 변천과정과 그 배경에 관한 연구<sup>2)</sup> 황룡사를 고대 가람과 비

2) 발굴조사결과를 토대로 황룡사 가람배치에 관한 논저 중 대표적인 것은 각주 1번의 김정기(안)이 우선 거론되어야 하고, 그 이후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조유진의 『新羅皇龍寺伽藍에 관한 研究』(동아대학교 박사논문, 1986) 및 김동현의 『皇龍寺의 建築計劃에 關する 研究』(동경대학 박사논문, 1992) 등이 대표적이다. 조유진은 창건부터 최종 고려시기까지 5차례로, 김동현은 4차례로 구분하였다. 금당과 목탑의 조성시기를 구분하여 보는 관점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인데, 세부적으로는 창건가람의 강당지 영역과 서금당지의 유구 해석에 약간의 차이도 있다. 이러한 가람배치안은 홍광표(『皇龍寺의 空間形式 變化와 內在的 意味』, 『佛敎學報』 제34집, 1997) 및 김창호(『皇龍寺 창건가람에 대하여』, 『慶州史學』 19, 2000)의 논지에서 황룡사 변천단계에 대한 역사적 배경 설명이 덧붙여졌으며 특히 김창호는 황룡사가 창건가람부터 1탑 3금당형식일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양정석(『新羅 中古期 皇龍寺의 造營과 그 意味』,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1. 12 및 동저자, 『皇龍寺의 造營과 王權』, 서경, 2004)은 이에 더하여 황룡사 발굴자료와 기존 연구성과를 종합·분석하여 황룡사 가람배치의 변천과정과 삼원구성, 세 금당 배치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고, 황룡사의 가람배치는 중국 태극전과 같은 정전에 대한 좌우대칭 배치와 같은 궁궐건축 배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때 원 동·서회랑의 존재의미를 부각시켜 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2년 2월 필자가 발표한 「황룡사 가람배치 재검토」(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주최, 『황룡사 복원연구 포럼』, 2012.

\* Corresponding Author : sk2kim@hotmail.com

1) 김정기, 「Ⅷ. 皇龍寺 伽藍變遷에 關한 考察」,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4

교하여 그 특징을 논한 연구<sup>3)</sup> 등이 발표되었다. 황룡사와 같은 1탑 3금당 배치는 삼금당 배치가 처음 나타나 고구려 불교사원에서 신라로 그 계통이 이어졌다고 보거나 중심건물과 좌우에 대옥(對屋)을 둔 중국 궁궐건축의 형식이 전래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4)</sup>(<Fig.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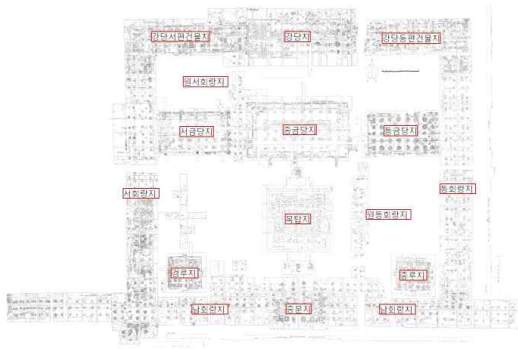


Fig.1 Excavation plan of Hwangnyongsa temple site  
(『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1984)

기존의 고대가람배치 연구는 시대적 흐름과 형식적 공통점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던 연구방법이 유지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관련기관의 발굴조사 결과가 축적되면서 기존의 가람배치형식이나 건물의 구조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이 제기<sup>5)</sup>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구대상에 대한 참조틀은 잠시 내려놓고, 유적 그 자체의 정보를 정확히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 황룡사

발굴조사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가람배치를 재론하게 되는 것은 고대건축의 특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황룡사 창건가람은 세 개의 공간으로 분할된 상태였고, 그 중앙 공간에만 금당이 있었으나 584년경 금당이 조성된 이후에는 단일원으로 합해진 공간에 삼금당이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 금당 사이에 위치해 있었던 원 동·서회랑지 유구<sup>6)</sup>를 살펴보면 세 금당의 건립과 삼원구성체제는 꽤 오래 지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초석 이하 유구만 남아있는 유적지에서 건물의 존속시키는 인접한 건물지 유구와의 상대적 선후관계를 통해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일정한 시기의 황룡사의 가람구성을 규명하는데 있어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황룡사의 유구를 발굴자료를 통해 분석<sup>7)</sup>하고 황룡사의 가람배치를 재검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4단계 변천과정 중 특히 중건시기 가람배치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가람배치가 재고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우리나라 고대건축의 정황을 이해하는데 일조(一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황룡사 가람조성과정 검토

황룡사 주요 건물에 대한 기록은 황룡사 가람배치 변천과정의 중요한 기준시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황룡사 조영에 관한 기사를 아래 <Tab.1><sup>8)</sup>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황룡사 가람조성은 4단계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구분방법은 발굴조사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기존 연구자<sup>9)</sup>간의 큰 견해차가 없었다.

I. 창건가람(553~569년)

6) 발굴조사보고서에서 사역을 삼분할하는 남북으로 긴 단랑은 동서 3칸의 동·서회랑과 대비하여 원(原) 동·서회랑(76쪽) 또는 창건동·서회랑(372쪽)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원 동·서회랑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외 황룡사지 각 건물지의 명칭은 발굴조사보고서에 따랐다.

7) 황룡사는 발굴조사가 끝난 지 30년이 지났다. 본 연구는 그때 나온 발굴조사결과를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자료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8) <Tab.1>은 조유진, 「황룡사연혁표」(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9~31쪽)를 바탕으로 하고 내용을 더 추가한 것이다.

9) 각주 2) 참조

2)는 원 동·서회랑과 세 금당간의 관계, 남회랑과 동·서회랑간의 연결관계 변화, 남회랑의 증축 배경 등을 검토하여 기존의 황룡사가람배치는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한 바 있었다. 본고는 이 중 원 동·서회랑과 세 금당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더 발전시킨 것임을 밝혀둔다. 포럼 발표문은 이후 『황룡사 건물복원기초연구』(황룡사연구총서10,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12)에 수록되어 있다.

3) 황룡사와 함께 백제 및 고구려 등 고대 가람과 비교하여 연구·발표된 것으로는 장경호의 「皇龍寺址를 中心으로 고찰해 본 우리나라의 古代寺刹伽藍 (I)·(II)」(대한건축학회지 24권 96호 1980. 10. 12.)과 「미륵사지와 황룡사지의 유구를 통해 본 비교고찰」(제7회 마한백제문화국제학술회의, 원광대학교 주최, 1983) 등의 논문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또 윤도근외, 「彌勒寺와 皇龍寺址의 伽藍計劃比較研究」(대한건축학회논문집 4권 1호 통권15호 1988. 2.)에서는 기단규모와 건물높이의 비례관계, 가람배치 전체를 지배하는 수차례 등을 논하였다. 김성우는 「三金堂 形式의 展開」(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 1호 통권27호 1990. 2.)에서 황룡사와 군수리사지의 가람배치를 비교하면서 황룡사 회랑구성과 사역구성에 관한 검토가 있었고 특히 창건가람부터 삼금당으로 배치되었다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378쪽 참조  
조유진, 앞의 논문, 130쪽 참조  
김성우, 앞의 논문, 167, 173~175쪽 참조

5) 예를 들어 최근 조사된 정림사지(「扶餘 定林寺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가람배치는 백제식 1탑 1금당배치형식에 대한 관점변화가 요구되는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Tab1. Records on construction of Hwangnyoungsa

Phase	Records on construction	Records on construction relevant	Reference
I	553(진흥왕 14) 황룡사 창건	(비슷한 시기) 3만 5천근 무게의 종 주중	삼국사기 신라본기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장육 기연 제33권 외편 신라세가 중
	556(진흥왕 27) 황룡사 완공		삼국사기 신라본기
	569(진흥왕 30) 주위 담장 완공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장육
	574(진흥왕 35) 장육존상 주조	(비슷한 시기) 동축사 삼존불상 이전 안치	삼국사기 신라본기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장육
		575(진흥왕 36) 장육상 눈물 흐름	삼국사기 신라본기
II	584(진평왕 6) 금당 조성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장육
		613(진평왕 35) 수 사신 황룡사 백고좌 설치	삼국유사 제4권 원광서학
		622(진평왕 44) 왕 황룡사 친행	삼국사기 신라본기
		636(선덕왕 5) 백고좌회 개최	삼국사기 권5, 선덕왕 5년조
	643(선덕왕 12) 백제아비지 탑 조성	643(선덕왕 12) 자장건의 자장 7일 동안 보살계 강연	찰주본기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구층탑
	645(선덕왕 14) 황룡사 탑 창건		찰주본기 삼국사기 신라본기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구층탑
		673(문무왕 13) 황룡사에 벼락 침	삼국사기 신라본기
		674(문무왕 14) 큰 바람으로 황룡사 불전 훼손	삼국사기 신라본기
		698(효소왕 7) 황룡사에 큰 벼락과 천둥 침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구층탑
		718(성덕왕 17) 지진으로 황룡사 탑 틈 발생	삼국사기 신라본기
	720(성덕왕 19) 탑 중성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구층탑	
III	754(경덕왕 13) 주중(길이1장3촌, 두께9촌, 무게497,581근)	754(경덕왕 13) 황룡사에서 화엄경 강론	삼국유사 황룡사중 삼국유사 현유가해회암
		758(경덕왕 17) 큰 바람으로 불전 하나가 무너짐	동사강목 제4하 무술년 경덕왕 17년
		768(혜공왕 4) 황룡사 벼락치고 지진, 낙뢰	삼국사기 신라본기
		866(경문왕 6) 황룡사 등, 연회	삼국사기 신라본기
	868(경문왕 8) 탑 3번째 중수	868(경문왕 8) 황룡사 탑 벼락, 지진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구층탑
	871(경문왕 11) 탑 개조 전반적인 보수		찰주본기 삼국사기 신라본기
		872(경문왕 12) 탑 내부에 석탑, 사리, 경전 안치	찰주본기
	873(경문왕 13) 탑 완성 높이22장		삼국사기 신라본기
		876(현강왕 2) 황룡사 백고좌 강경	삼국사기 신라본기
		886(현강왕 12) 황룡사 백고좌 강경	삼국사기 신라본기
	887(정강왕 2, 진성왕 1) 황룡사 백좌 강경	삼국사기 신라본기	
	890(진성왕 4) 황룡사 등	삼국사기 신라본기	
	924(경애왕 1) 황룡사 백좌 강경, 왕 행향	삼국사기 신라본기 삼국유사 제2권 경애왕	
	927(경애왕 4) 탑 북쪽으로 기울음	삼국유사 제4권 경애왕	
IV		949(고려 정종 4) 탑 불탑	고려사 지
		953(고려 광종 5) 탑 불탑 3번째 벼락과 천둥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구층탑 고려사절요 제2권 광종 대성대왕
	974(고려 광종 25) 주중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구층탑
	1012(고려 현종 3) 경주 조유궁을 헐어 그 목재로 황룡사 탑 중수		고려사 세가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원문대왕
	1021(고려 현종 13) 탑 4번째 중성	(비슷한 시기) 최항 황룡사 탑 수리 감독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구층탑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원문대왕
		1035(고려 정종 2) 4번째 벼락과 천둥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구층탑
	1064(고려 문종 18) 탑 5번째 중성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구층탑
		1095(고려 현종 1) 5번째 벼락과 천둥 황룡사탑 불탑 황룡사탑 수리를 명함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구층탑 고려사절요 제6권 현종 공상대왕 고려사 권7
	1096(고려 숙종 1) 탑 6번째 중성	(비슷한 시기) 주중(길이 6척8촌)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구층탑
	1105(고려 예종 1) 황룡사 수리 낙성		고려사 세가
	1238(고려 고종 25) 장육전우가 모두 불탑 몽고병이 황룡사탑을 불태움	삼국유사 제3권 황룡사구층탑 고려사 세가 고려사절요 제16권 고종 안효대왕3	

황룡사 창건기록은 불사(佛事)의 시종(始終)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중심사역의 내부를 삼분하는 원동·서회랑이 있고, 작은 규모의 금당과 탑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또 황룡사지 중심사역내의 최하층에서 발견된 유구, 또는 중건흔적이 남아있는 건물의 첫 번째 단계의 유구는 창건가람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강당지와 강당동·서편건물지의 최하층에서 '口'자 형태의 줄기초가 동서로 길게 연속되어 있는 건물지<sup>10)</sup>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중심사역의 동·서편에는 남북으로 긴 회랑건물이 에워싸고 있는 형식으로 보이거나 그보다 앞서 동서 3칸의 건물(승방으로 추정)이 세워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남편에는 중문(정면 3칸, 측면 2칸)과 좌우에 남회랑(단랑)이 이어져 있었다.(〈Tab.2〉 I 단계)

## II. 신라시대 중건가람(584~645년)

창건가람이 완성된 후 금당과 목탑이 조성되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신라와 통일신라시대를 지나면서 황룡사가 점차 완성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현존하는 중금당 유구는 창건가람의 것이 아니라 584년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황룡사는 세 금당이 병렬로 배치된 특이한 형태임을 알게 되었다.

황룡사의 각 건물지는 여러 차례 중건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중금당 좌우에 있는 동·서금당은 각기 3차에 걸친 조영이 있었고, 1차시기의 건물규모가 가장 크고 이층기단까지 갖추고 있었으나 2, 3차시기가 되면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중금당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인 흔적이 있었다. 중심사역은 단일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심에 목탑이 세워졌다. 현존하는 목탑의 초석배치는 창건시기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기초구조부는 남아있기 때문에 창건시기의 목탑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강당은 전면 10칸 측면 4칸의 건물이었고, 강당의 좌우에 붙어 있는 강당동·서편건물은 강당과 초석높이가 거의 비슷하다. 이 건물은 전면 12칸, 측면 3칸의 규모로 대칭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613년 수나라 사신이

10) 강당지 및 강당동·서편건물지 최하층의 '口'자형 줄기초 유구는 김정기(1984)과 김동현(1992)에서 창건가람의 것으로 보고 있으나 조유진(1986)은 황룡사 창건 이전의 유구로 보고 아예 황룡사 가람 배치에서는 배제하였다. '口'자형 유구는 1.7~2m폭의 줄기초로 구성되었고 '口'자의 크기는 줄기초의 중심간 거리로 측정하였을 때, 남북 6.4~6.5m, 동서 6.6~7.2m이다. 연속되는 '口'자의 이격거리는 줄기초 중심간 거리로 측정하였을 때 약 2.5m이고 외벽선간격은 45cm~1m이다. '口'자형 구성간 중심거리는 15.1m이다. 이 줄기초는 초석상면에서 아래로 1.2~1.5m로 깊이로 조성되어 있고 그 상부에 강당과 강당동·서편건물지 1차 유구가 중첩되어 있었다.

황룡사에 와서 백고좌를 처음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강당과 같은 대형건물이 조성되었을 수 있고, 강당의 동·서편과 중심사역의 동·서편 등지에는 대규모 승원이 건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sup>11)</sup>

또한 중심사역의 정문에 해당하는 중문과 좌우의 남회랑은 남쪽으로 이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중문은 정면 3칸에서 4칸으로, 남회랑은 단랑에서 복랑으로 규모가 더 커졌다.(〈Tab. 2〉 II 단계)

## III. 통일신라시대 중건가람(745년~통일신라말)

신라시대 중건가람의 전반적인 구성은 그대로 이어졌다. 이 시기 가장 큰 변화는 중·경루 건립과 맞물려 나타났다. 중·경루는 1차 남회랑(단랑)의 유구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확실히 창건가람에는 없었던 것이 된다. 754년의 주종기록을 바탕으로 중·경루가 이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sup>12)</sup> 중국 당대(唐代) 불교사원에서 남쪽에 중루와 경장을 대칭적으로 배치하는 일이 성행하였던 것<sup>13)</sup>을 비추어 본다면 황룡사의 가람배치가 불교유입과 그러한 영향력 속에서 변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황룡사 중루지 동편 출입구에서 동승방지 방향으로 보랑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적심석이 남아있었다. 두 건물은 사역 남편에 대칭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당시의 불교사원 가람배치를 고려해 볼 때 일시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경루가 설치되면서 중심사역의 남편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 중문과 남회랑이 더 남쪽으로 이진되었고 남회랑의 단부가 담장이 있는 범위까지 더 뻗어나가도록 증축되고 있는 것이다. 3번째 지어진 중문은 전면 5칸

11) 신라에서 7세기 초반부터 행해진 백고좌회는 『인왕경』의 「호국품」에 의거하여 경전을 강설하는 호국법회이다. 이 법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00구의 불상, 100구의 보살상, 100구의 나한상을 봉안해야 하고 100개의 고좌를 시설해야 할 뿐만 아니라 100명의 비구, 사부대중이 있어야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복원 기반 연구』(황룡사연구총서6), 2010, 102~104쪽 참조) 따라서 이러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는 장소는 황룡사와 같은 대찰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황룡사 내부에는 이에 대응하는 시설이 건축되어야 했을 것이다. 또한 선덕왕대 황룡사의 사주(寺主)는 진골이거나 신라 최고의 승관인 국통이 역임하였다. 신라에서 행해졌던 백좌강회의 기록은 총 10회인데, 이 중 80%가 황룡사에서 개최된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신라에서 황룡사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이기백,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時代の 國家佛敎와 儒敎』, 한국연구원, 1978, 56~59쪽, 61~63쪽 참조

12)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중·경루가 황룡사 회랑내곽에 출현한 시기를 첫째 황룡사 중 주종시기 이후, 둘째 불국사 중건(854년) 이후로 추정하였다.

13) 박대성, 『伽藍의 시기별 經·鐘樓의 配置特性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12~19쪽 및 玄勝旭, 『中國佛敎寺院鐘鼓樓의 形成背景與 建築形制及 布局研究』, 청화대학 박사학위논문, 2013, 32~35쪽 참조

측면 2칸의 건물이며 남회랑도 북랑의 규모가 더 컸다.<Tab.2> III단계) 이 시기 경문왕대에는 찰주본기의 기록(872)에서 보듯이 심주를 들어 사리공을 확인할 정도로 대규모의 목탑중건공사가 있었다.

Tab.2 The variation of layout(김동현,1992)

Phase	Layout
I	
II	
III	
IV	

IV. 최종가람(고려)

황룡사의 가람배치는 고려시대에도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각 건물지의 가장 위에서 발견된 유구는 최종시기까지 남아있었던 것이므로 고려시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당은 전면 10칸 건물에서 9칸 건물로 축소되었다. 후대 강당의 초석 하부 적심에서 소토나 고려시대 청자편 등이 출토되어 고려시대의 중건으로 짐작된다. 강당 동·서편건물은 당초의 대칭적인 정형성에서 벗어나 각기 3개의 건물로 분립되고 있는데 축소된 강당에 연결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고려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심사역의 동·서편에 있던 동·서승방은 북랑으로 지어졌다.<Tab.2> IV단계) 목탑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려시대에도 계속해서 수리와 증성이 이어졌다. 이처럼 황룡사는 몽골군에 의해 소실될 때까지 그 사맥이 끊이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각 건물도 필요에 따라 중수가 이어졌던 것으로 생각한다.

3. 황룡사 중건가람배치 유구 검토

3.1 건물지 기초구조부 특징

황룡사지는 발굴조사 시 건물지별로 2~5개의 시굴구를 파서 조사하였다. 시굴구의 토층면 조사결과로 각 건물의 기초구조부 축기상태, 초석 하부 적심의 중첩상태 등을 알 수 있다. 황룡사 건물지의 기초구조부는 바닥전체를 기초구조로 구축한 경우(온통기초), 초석하부에만 깊고 큰 원형적심을 구축한 경우(독립기초) 등 두 가지 방법이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온통기초로 축조된 건물지는 목탑지, 서금당지, 중금당지 등이다. 목탑지와 서금당지는 바닥전체를 기초구조로 한 굴광적석기초라고 할 수 있으며 중금당지는 굴광관축기초<sup>14)</sup>라고 할 수 있다. 서금당지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초석자리에만 원형적심을 구축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3차시기에 온통기초로 바꾸어 축조되었다. 세 건물지를 제외하면 황룡사의 모든 건물은 독립기초로 구축된 것이다. 그러나 강당지 및 강당동·서편건물지 최하층과 경루지 1차 유구와 같이 줄기초가 축조된 것도 있기 때문에 벽식구조의 건물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독립기초로서 원형적심이 남아있는 건물지는 초석의 배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건물평면에 대한 1차적 정보를 얻기 쉽다. 반면에 온통기초는 기초위에 별도의 적심 없이 초석을 놓기도 하고, 적심이 있었다라든가 얇고 작게 형성되어 있는 편이다.<sup>15)</sup> 서금당지와 같이 기초구조부의 상면이 어느 정도 삭평되어버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평면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원동·서회랑은 동·서승방과 기초 축조방법이 유사하여 동시기에 존재했던 건물로 보고 있다.<sup>16)</sup> 동·서승방은 동서 3칸의 건물로 주칸간격이 남북은 평균 약5.5m, 동서는 중앙칸이 약6.7m, 양협칸이 2.5m로 측정되며<sup>17)</sup> 이 때 가운데 주칸 주열선 위치에는

1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372쪽 인용  
 15)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금당 기초 연구』, 황룡사 연구총서5, 2010, 74쪽 <표2-2 중금당지 초석 정초방식 비교> 참조  
 16)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97쪽 참조

전들이 세로로 박혀있어 벽체시설의 하부흔적으로 추정된다.

3차 서금당과 목탑은 기초축조방법과 기초내부에서 출토된 유물 등의 공통점을 들어 역시 동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판단하였다.<sup>18)</sup> 두 건물지가 굴광적석기초로 축조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유물의 출토위치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도 있다. 목탑은 심초석 하부 적심석 범위 내에서만 유물이 출토<sup>19)</sup>되었기 때문에 기초를 축조한 후 심초석을 놓을 때 유물을 매납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서금당은 여러 토층시굴구에서 발견되었는데, 유물이 주로 건물의 중심부이면서 유적의 10~75cm 깊이까지 두루 출토<sup>20)</sup>되었기 때문에 기초구조부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매납<sup>21)</sup>한 것이었다. 한편 정교한 굴광관측기초로 축조된 중금당지에서는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금당의 3차시기에 해당하는 온통기초유구는 중금당이 지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구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중금당지는 장육존상의 대좌를 비롯한 19기의 석대좌가 내진에 남아있어서 584년에 건립된 금당의 유적으로 볼 수 있다. 또 토층시굴구 조사결과, 기초위에 놓인 초석의 하부가 한번도 변경된 적이 없는 초석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중금당의 규모는 처음부터 소실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22)</sup> 중금당은 내진이 있는 측면 4칸의 본체건물과 기단을 낮춘 차양칸

이 이를 에워싸고 있는 평면형태로, 전체규모는 전면 11칸, 측면 6칸이며 주칸은 약 5m의 정방형이다. 중금당지의 기초유구를 검토해보면, 하층기단 범위까지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기초를 구축할 때부터 이미 건물의 규모와 구조를 계획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서금당지는 1~3차의 유구층이 중첩되어 있다. 1차시기의 평면은 동금당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1차 동금당은 중금당과 같이 하층기단에 기둥을 세웠던 형식이며 초석의 배치를 보면 중앙부에 내진이 있고 이를 외진이 둘러싼 형식이었다. 그러나 규모면에서는 전면 9칸, 측면 6칸이며 주칸간격도 3.6~4.1m로 중금당보다 작다. 1차 서금당에서도 하층기단위에서 독립기초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 두 건물은 평면형식이 동일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금당은 처음 지어졌을 때는 형식적인 면에서 공통적으로 계획되었고, 차양칸 기둥이 상층기단의 본체 건물 외진주를 지지하게 하여 중첩(重檐)의 외관을 갖게 한 건물이었다고 생각된다. 동금당지가 3차 시기에는 건물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하층기단도 없어지고 본체건물도 조금 축소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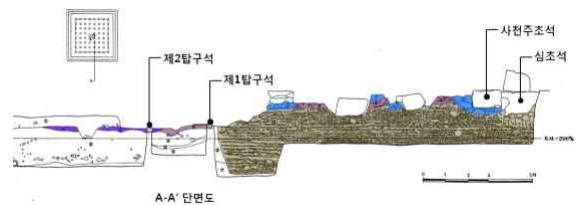


Fig.1 Layer elevation of Wooden Stupa in Hwangnyongsa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도면29 채색)

목탑이 처음 건립된 것이 7세기 중반이므로 9층 목탑은 선덕왕대 자장의 건의로 비로소 건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목탑은 온통기초이나 토층조사결과 현재 남아 있는 초석은 기초구조부의 상면을 일부 제거하고 재정초한 것이다. 목탑의 초석은 <Fig.1>에서 보는 것처럼 적심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며 6차에 걸친 중성기록에 비추어 본다면, 중건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발굴조사결과 처음 축조한 기초구조부가 변경없이 사용되고 있었고,<sup>23)</sup> 토층도에서 심초석은 굴광선이 없어 한번도 변경된 적이 없었던 것<sup>24)</sup>으로 보아 규모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기초구조부의 범위가 담구석 범위까지 미치지 못하

17)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98쪽 참조

1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76쪽 참조

1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309~329쪽 참조  
유물은 대표적인 것으로 금동반구형장신구, 금동관발, 금동원형장신구, 유리구슬(2,890점), 은도자, 철도자파편, 청동용기, 청동거울, 청동방울 등으로 심초석 하부와 적심석 깊이, 심초석 주변 위로 구축된 토층속에 매납되었던 것이다. 금동태환이식은 심초석 범위를 벗어난 기단토내에서 수습된 것도 있다.

2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302쪽 표 참조  
유물은 대표적인 것으로 금동태환이식, 금동이식, 유리구슬, 금동광배장식, 금동가위, 청동용기 청동관구 등 70점이며 의식적인 매납으로 보인다.

21) 조유전, 앞의 논문, 119~120쪽 참조  
황룡사 서금당지와 목탑지 기초구조부에 있는 유물은 진단구로 판단되는데, 왕흥사지 목탑지, 미륵사지 석탑지 등에서 발견된 바 있는 사리장엄구 성격으로 보인다. 황룡사 회랑, 부속건물지, 석등지 등에서 발견된 진단구(호, 함, 소용 등)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판단된다.(최은아, 『慶州地域出土 鎮壇具에 대한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2005 참조) 일본의 경우 건물지의 기단토에서 유물이 출토된 대표적인 것으로는 동대사 대불전, 흥복사 금당 등이며 주로 나라시대(8세기)에 세워진 금당지와 목탑지에서 발견되기 시작하여 헤이안시대까지 이어지나 점차 다소 간략화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特別陳列 鎮壇具』, 奈良国立博物館, 1977 참조)

22)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금당 기초 연구』(황룡사 연구총서5), 2009, 67 및 73쪽 참조

23) 조유전, 앞의 논문, 201쪽 참조

2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329쪽 인용

고 있기 때문에 탑구석 설치의 목탑 창건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 사천주 초석하부에서 가공된 석조부재가 적심석으로 발견된 점, 심초석 하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유물 등을 들어 현재의 평면구조는 경문왕대나 고려시대에 중건된 목탑<sup>25)</sup>으로 짐작된다.

독립기초로 축조된 황룡사의 각 건물지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후대로 올수록 적심의 깊이가 얇고 작으며 선대로 갈수록 적심이 깊고 적심의 상면 직경도 매우 크다는 점이다. 또 큰 적심일수록 층단별로 적심석의 배열이 체계적이고 조밀하여 매우 정교하게, 정성스럽게 축조하려고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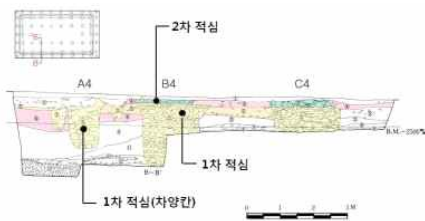


Fig.2 Layer elevation of Eastern Hall in Hwangnyongsa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도면31 채색)

동금당과 같이 기존 1, 2차의 적심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 위에 재정조하는 경우에 3차시기의 적심은 굴광흔적은 있으나 그 깊이가 매우 얇고(15cm정도) 직경도 작게 하였다.<sup>26)</sup> 동금당지 1차 적심은 서금당지 3차 유구 하부에서 발견되는 적심과 유사하다. 동금당지 2차 적심은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분황사지 1차 중건 금당지<sup>27)</sup> 및 성동동 전랑지 건물지 적심<sup>28)</sup>과 축조기법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다.<sup>29)</sup>

장당이 전면 10칸의 건물일 때의 적심은 크고 깊으나 전면 9칸으로 축소될 때 적심이 얇고 작은 것을 볼 수 있다.<sup>30)</sup> 동·서회랑은 동서 3칸의 승방지로 축조된 적심은 크고 깊으나 동서 2칸의 복랑으로 축소 변경되었을 때의 적심은 얇고 작다.<sup>31)</sup> 동·서승방지는 남회랑 1차, 2

차 유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서승방이 복랑으로 변경된 것은 고려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 3.2 중건가람배치 재조명

황룡사 가람배치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황룡사의 가람배치 변천과정을 금당과 목탑의 조영을 중심으로 인식하였던 견해가 삼원과 단일원의 변화시기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역을 구분하고 있는 원동·서회랑의 위치, 익랑의 관계 등에 대한 해석에서 원동·서회랑의 폐기시점을 목탑조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sup>32)</sup>

이 부분에 대해 창건가람에서부터 세 금당이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기존연구가 몇 있어 주목된다. 만일 중앙공간에만 금당이 하나 있었다면 남북을 가로지르는 원동·서회랑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창건가람에서 세 금당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원동·서회랑이 정확히 세 금당의 중간지점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당시의 보편화된 형식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sup>33)</sup>

한편으로는 삼금당형식이라는 고구려 불교사원과의 연관성을 들기도 하고, 평양 정릉사지, 안학궁지와 같이 좁고 긴 공간이 회랑으로 구획되어진 배치와 관련지어 보는 견해가 나오기도 하였다.<sup>34)</sup> 또한 분황사 창건(634년) 당시 삼금당 조성이라는 배경속에서 재차 제기되기도 하였다.<sup>35)</sup> 이는 금당이 조영된 2단계 중건가람배치가 실제로는 창건 가람배치라고 본 것이다.<sup>36)</sup>

이처럼 원동·서회랑으로 인한 중심사역 삼분함과 삼원이라는 구성, 세 금당의 배치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황룡사 가람배치 변천과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익랑의 위치와 존속기간, 폐기시점 등에 대한 견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25)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복원연구포럼』, 103쪽 참조  
 26)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68쪽 참조  
 1차 동금당지 적심의 잔존규모는 상면 직경 2.1~2.8m, 깊이 1.9~2.3m정도이다. 치수는 토층단면도를 실측한 것이다.  
 2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 2005, 59쪽 그림 참조  
 2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랑지·남고루 발굴조사보고서』, 1995, 213쪽 그림 참조  
 2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복원연구포럼』, 138쪽 참조  
 3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90쪽 참조  
 선대적심의 잔존규모는 상면 직경 2.5~2.7m, 깊이 1.2m 정도이다.

31)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98쪽 참조  
 선대적심의 잔존규모는 상면 직경 1.4m, 깊이 1.2m정도이다.  
 32) 양정석, 앞의 책, 63쪽 참조  
 33) 김성우, 앞의 논문, 133, 135~136쪽 참조  
 34) 고구려건축과 황룡사를 비교한 연구성과는 여러 편이 있었으며 이들을 비교고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나 정릉사지나 안학궁지 자료가 매우 소략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35) 김창호, 앞의 논문, 75쪽 참조  
 이강근, 『분황사의 가람배치와 삼금당형식』, 『분황사의 재조명』, 동국대경주캠퍼스설립20주년기념논문집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 논문집, 제20집, 1999, 223~229쪽 참조  
 36) 양정석, 앞의 책, 65쪽 인용

다. 이것은 발굴조사보고서에서 밝힌 1차적인 해석의 틀, 특히 창건가람배치<sup>37)</sup>에 대한 견해가 확고했고 이를 토대로 가람배치의 변천단계를 보고자 한 발굴조사보고서 기술상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4. 황룡사 중건가람배치 검토

4.1 원 서회랑지와 두 금당

중금당지와 서금당지 사이를 지나서 원서회랑지는 동서폭 약 3.2m 남북폭 약 3.8m<sup>38)</sup>의 단랑이다. 이 단랑은 중문에서 서측으로 6번째, 동서 주칸이 좁아진 위치에서 남서회랑과 연결되어 강당서편건물의 동측편 첫 번째 주칸 위치에 이르는 남북으로 긴 건물이었다. 그리고 원서회랑의 익랑은 남에서 북으로 20번째, 남북 주칸이 좁아지는 위치에서 동·서방향으로 1칸씩 뺀어나간 것이다.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이 익랑이 창건 금당을 위해서만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고, 중금당이 중건되면서 원래의 익랑이 모두 파괴되고 1칸만 남아 있게 된 것으로 보았다.<sup>39)</sup> 또한 서금당지 방향으로 나간 익랑의 적심석은 서금당 원형적심석 위에서 발견되었으므로 3차 서금당과 건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sup>40)</sup>

그런데 발굴조사결과를 종합하는 성격인 「Ⅷ. 황룡사가람변천에 관한 고찰」<sup>41)</sup>에서는 중금당 방향의 익랑만 창건가람시대 유구로 다루고 서금당 방향의 익랑을 논의로 취급해 버렸다. 그래서 세 금당이 병렬로 세워졌던 시대에는 황룡사의 중심사역이 단일원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황룡사와 같은 대규모 고대 가람의 건축적 특징을 가람배치 변천과정이라는 큰 틀로 파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개별 건물의 조사내용이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되지 못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발굴평면도에서 원서회랑의 동익랑 적심은 중금당 외진주열에서 서쪽으로 약 5.7m거리에서 발견되었지만 중금당의 판축기초범위는 실제로 이보다 더 서쪽까지, 즉 외진주 주열선에서 서쪽으로 22척(6.67m)까지이기 때문에<sup>42)</sup> 원서회랑의 익랑이 중금당 기초 축조 후에 건축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다.(<Fig.3>참조) 이것은 서금당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금당의 판축기초범위는 서금당 동측 외진주열선에서 동측으로 약 4.39m까지이다.<sup>43)</sup> 이렇게 되면 익랑의 적심석은 이 판축기초 굴광 시작위치에 걸쳐서 그 위에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익랑은 3차 서금당의 기초축조 이후에 세워진 것이다.

이처럼 발굴조사보고서와 도면을 검토해보면 원서회랑의 동·서 익랑은 서금당과 중금당<sup>44)</sup>을 연결, 동시기에 사용되었던 건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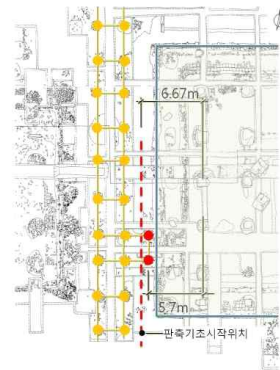


Fig.3 Excavation plan of Main hall and west corridor

따라서 중금당과 서금당 사이에는 원서회랑이 지나가고 있고 동서 양측으로 익랑을 내어 상호 출입이 되도록 하였고 회랑으로 분할된 공간에 각각 금당이 서 있었던 것이다. 중금당은 익랑과 연결되는 위치인 측면 첫 번째 칸에 출입문과 계단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는 서금당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5)</sup> 동금당지와 원동회랑지 관계는 유구가 파괴된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으나 동·서가 대칭적으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4.2. 삼원구성의 존속기간

황룡사가 삼원으로 구성되었던 기간의 하한은 원 동·서회랑지의 철거시점과 관련이 있으며 그 시점을 추정할

37) 본고에서 창건가람배치에 관한 고찰은 제외하였다. 그것은 기존 연구에서 창건가람배치의 유구라고 했던 상당부분이 실은 중건가람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과 중심사역 북편에 위치하였던 ‘口’자형 줄기초 건물의 성격규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추후 별도의 연구과제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38) 원동·서회랑 주칸거리는 발굴도면상의 실측치수이다.

3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372쪽 참조

4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76쪽 참조

41)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pp.371~379 참조

42)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48쪽 참조

43)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도판편), 「도면32 서금당지 토층도」 중 B-B' 입면을 도면상에서 실측한 치수이다.

44) 현재의 중금당 유구는, 발굴조사보고서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처럼 창건가람의 금당이 있었다는 전제를 한다면 2차 중금당에 해당되며, 서금당 유구는 선대 적심석기초가 중첩되어 발견됨에 따라 3차 서금당으로 볼 수 있다.

45) 이처럼 회랑과 금당이 익랑으로 연결된 형식은 주로 신라 불교사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감은사지, 고선사지, 사천왕사지, (전)인용사지, 불국사, 황룡사 서편폐사지 등이 있다.



수 있는 단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원동·서회랑지는 단랑인 1차 남회랑에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건립된 2, 3차 남회랑과는 무관하다. 1차 남회랑과 연결되는 위치는 중문에서 동·서방향으로 6번째 칸이며 주칸폭이 좁아진 부분이다. 원동·서회랑은 복랑인 2차 남회랑과는 주열선이 전혀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차 남회랑이 서기 전에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sup>46)</sup> 중심 사역내 남동,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중·경루지는 각각 1차 남회랑의 유구를 파괴하고 들어선 것이므로 중·경루가 창건되기 전에 원동·서회랑도 철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동·서회랑은 세 금당 사이 공간에서 정확히 가운데로 지나간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차 서금당의 기초축조시기는 목탑의 건립연대인 7세기 중반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목탑은 645년에 창건된 것이고 중·경루의 창건시기를 주종시기로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동·서회랑이 7세기 중엽에도 존속하였으며 철거시점은 역시 8세기 중반이 그 하한이 되겠다.

원동·서회랑은 1차 남회랑과 같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로 황룡사 중심사역 조영역사속에서 매우 이른 시기에 지어졌던 것이다. 즉 세 금당이 서게 되는 시점부터 원동·서회랑이 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익랑은 2차 중금당과 3차 서금당의 기초 위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중금당이 조성된 시기(584년)가 상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봤을 때 관련 건물의 조영순서는, ‘중금당, 동·서금당 → 원서회랑과 익랑 → 서금당(3차), 목탑 → 원서회랑과 익랑 → 원동·서회랑 및 1차 남회랑 철거, 중·경루 → 2차 남회랑’의 순으로 볼 수 있다.

원 동·서회랑 존속기간에 대한 또 하나의 단서는 이 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져 있는 폐와(廢瓦)무지와 그 안에서 출토된 기와들이다. 발굴조사보고서에 정리된 황룡사 폐와무지<sup>47)</sup>는 총 12개소이며 이 중 6개소가 이 원동·서회랑지의 유구를 파괴하고 만든 구덩이이다. 발굴조사보고서에는 이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기와의 편년에 대해 통일신라시대 2개소, 고려시대 3개소, 고신라~고려시대 1개소 등으로 판단하였다.<sup>48)</sup> 폐와무지가 만들

어진 시기는 적어도 출토기와보다는 후대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폐와무지 6개소를 설치한 시기는 상한이 통일신라시대이므로 원 동·서회랑 철거시점의 하한은 통일신라시대 어느 시기라고 볼 수 있다.<sup>49)</sup>

### 4.3. 중건가람배치

원동·서회랑으로 구획된 삼원의 가람구성은 오직 1단계 남회랑과 관련이 있다. 1단계 남회랑과 연결되는 중앙공간의 문지는 조사되었으나, 좌·우공간(院)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중·경루지를 건축하면서 파괴된 위치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동·서회랑으로 구획된 중앙공간의 내쪽은 정확히 강당이 전면 10칸일 때의 건물 전면 너비와 일치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원동·서회랑으로 구획된 중심 공간에서는 중문, 목탑, 중금당, 강당이 중축선상에 배치된 가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좁은 단랑이 이들을 연결하는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룡사의 중심사역이 삼원으로 형성된 것은 궁궐건축의 형식에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불교사원으로서 오랜 기간 유지되었다는 측면에서 백제 미륵사지와 관련지어 보는 견해가 많다. 그리고 단일원으로 합하여진 것은 중·경루의 설치에 따른 사원 운영의 변화로부터 야기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경루 설치 후 황룡사 남회랑을 남쪽으로 옮겨짓고 복랑으로 건축되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sup>50)</sup> 복랑의 벽체는 남북 주칸의 중앙에 설치<sup>51)</sup>되어 중심사역 내외를 구분한 두 개의 동선이 성립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황룡사 가람배치 변천과정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창건가람에서만 존재하였다고 보았던 원동·서회랑이 황룡사 중건가람배치와 관련이 깊으며 세 금당이 존속한 시기에 사용되었고 이러한 구성체제가 통일신라시

46)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96쪽 참조

47)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192쪽 참조

황룡사지의 폐와무지는 어느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폐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건물지 주변 가까운 장소에 일괄적으로 묻은 것이다.(신창수, 『皇龍寺址 出土 新羅기와의 編年』,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1986, 12~14쪽 및 최병현,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630~632쪽)

4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회, 앞의 보고서, 122~123 및 192쪽

49) 실제로 중심내곽에서 발견된 폐와무지는 대부분 상한이 통일기라고 볼 수 있고 이보다 빠른 시기의 것은 강당 복편 즉 중심사역의 외곽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복원연구포럼』, 143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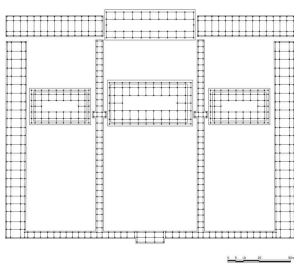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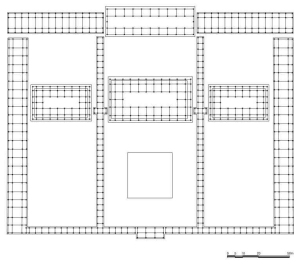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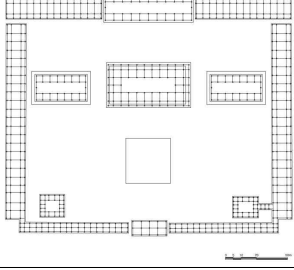
50) 지금까지 알려진 신라 불교사원 중 남회랑이 복랑으로 건축된 것은 황룡사와 분황사 중건가람 둘 뿐이다. 신라 불교사원 가람배치와 관련지어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51) 이것은 발굴도면에 표현된 3차 남회랑 동단부에 남아있는 남북 주열 세 개의 초석면에 표현된 고막이석의 방향에 따른 분석결과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복원연구포럼』, 149쪽 참조)

대에도 존속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황룡사 발굴조사결과를 고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황룡사 개별 건물의 변천과정과 인접한 건물간의 관계, 특히 초석이하 기초구조부 축조를 통한 선후대 판정이 기초가 되었다. 황룡사의 중건가람배치는 중·경루가 설치되는 8세기중반까지 삼원구성체제를 갖추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세 금당과 원동·서회랑은 동시기에 존재하였으며 단랑인 남회랑이 중건가람배치의 시대에도 존속하였다고 보았다. 이것은 기존연구에 비해 남회랑의 변천과정이 중문과 함께 진행되나 중심사역과 관련성을 두었던 기존 가람배치의 논리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남회랑과 중문의 중건은 8세기이후 황룡사의 가람배치, <Tab.3>의 3단계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 아래와 같은 중건가람배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Tab.3 Proposed revision of layout

Phase	Layout
II-1	
II-2	
III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황룡사의 가람배치가 고대 불교 사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황룡사에서만 구현된 특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삼원체제의 근거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둔 결과, 황룡사 삼원체제의 의미, 세 금당의 기능과 관계, 좁고 넓은 마당에서 일어난 활동 등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었던 많은 과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고대건축에 관한 발굴 조사와 관련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서 이러한 과제가 더욱 선명하게 규명될 뿐만 아니라 황룡사 가람배치에 대해서도 더욱 풍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Samguksagi(三國史記)  
 Samgukyusa(三國遺事)  
 1.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Bureau(文化財管理局)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文化財研究所), 『Excavation Survey Report of the Hwangnyongsa I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1984  
 2. Cho You-chon, 『Study on the Hwangnyongsa in Silla Korea』,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1986  
 3. Shin Chang-Soo, 『Chronology of Silla Roof-Tiles Unearthed at Hwangyongsa Temple sit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1986  
 4. Kim, Sung Woo, 「The Development of the Pattern of Three Image Halls」,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6 No.1 1990. 2.  
 5. Choi Byeong Hyun(崔秉鉉), 『Study on Silla tomb (新羅古墳研究)』, Iljisa(一志社), 1992. 1.  
 6. Kim Dong Hyun(金東賢), 『Study on Architectural Planning in Hwangnyongsa(皇龍寺의 建築計劃に關する 研究)』, Graduate School Tokyo University(東京大學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12.  
 7. 『Consideration form various angle of the Hwang-Ryoung temple』,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Gyeong-ju, Korea, March 2001  
 8. Yang Jeong Seok(양정석), 『Construction and Royal authority in Hwangnyongsa(皇龍寺의 造營과 王權)』, Seogyung(서경), 2004  
 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City of Gyeong-Ju, 『Forum on Reconstruction of the Hwangnyongsa Temple』, 2012

접수(2014. 4. 15)  
 수정(1차: 2014. 7. 29)  
 게재확정(2014. 7. 30)